

나주시, 골목형 상점 지정기준 완화...상권 활력 도모

조례 개정 밀집구역 점포개수 기준 변경 골목형 상점 지정시 온누리상품권 가맹 상품권 유통 소상공인 매출 증대 기여 "골목상권 활력 지원 사업 발굴 총력"

나주시가 '골목형 상점'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나주시는 골목형 상점 지정 요건인 소상공인 점포 개수를 15개소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23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이 지정될 위해서는 2000㎡내 소상공인 점포가 상업지역은 25개소, 비상업지역은 20개소 이상 밀집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특정 지역을 제외, 지역 상권 대부분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사실상 지원 기회를 받지 못해 왔다.

현재 나주시 관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운영 중인 곳

은 점포 32개소가 입점해있는 빛가람동 하나로플라자이다.

시는 이에 지난 11월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12월 '나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 밀집구역 점포 개수 기준을 완화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자격이 부여된다.

지역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와 동등하게 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 특성화시장 등 정부와 지자체에서 공모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한국전력 본사를 비롯한 이전공공기관 16곳이 위치한 나주지역은 온누리상품권 유통이 활발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충전식카드·지류·모바일상품권으로 스마트폰 앱,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현재 온누리상품권 가맹 구역은 나주목사고을시장·영산포공물시장을 비롯한 지역 전통시장 6곳, 금빛상점가, 나주혁신도시상가(TCC타워), 남내상점가(옛 나주상가), 영산포자율상권이다.

상인회 구성 및 골목형상점가 신청은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에서 받는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문의는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나주센터에 하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지정 기준 완화에 따라 내년부터 각 지역 상인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한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며 "민생경제 안정을 목표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김용의 기자



아동정책제안 토론회 나주시, 청소년 100원 버스 등

나주시는 지난 18일 나주시가족센터에서 아동참여단, 청소년참여위원회, 읍부즈퍼슨(아동권리대변인)이 함께 참여한 아동정책제안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아동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청소년 100원 버스, 아동을 위한 놀이·문화 시설 확대,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공모전 확대 등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미래 주역인 아동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시정에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의견들은 각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최대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2021년 12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이후, 지난 3년간 찾아가는 아동 권리 교육, 팝업 놀이터 운영, 아동친화 6대 영역 공모사업, 영상 솜품 공모전 등 아동이 행복을 누리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나주=김용의 기자

화재 예방 안전 한바퀴 캠페인 나주시, 민·관 합동 활동

나주시가 지난 19일 나주목사고을 시장에서 민·관·소방 합동으로 '안전 한바퀴로 지역 안전을 지켜요'라는 슬로건 아래 화재 예방 '안전 한바퀴' 캠페인을 펼쳤다.

23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에는 나주시, 나주소방서, 목사고을 시장상인회 등 30명이 참여해 시장 내 위험 요소를 찾아 안전신문고에 신고하고 개선해 나가는 활동을 펼쳤다.

화재 예방 홍보와 더불어 나주시민안전보험, 화재예방 전단지도 함께 배포해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김병호 안전도시건설국장은 "이번 민·관·소방 합동 '안전 한바퀴' 캠페인을 통해 주변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생활 속 안전 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지난 19일 나주시 관계자들이 관내 목사고을 시장에서 '안전 한바퀴로 지역 안전을 지켜요'라는 슬로건 아래 화재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나주시 제공

제5회 화순군 장애인 한가족 대축제 성황

장애인 이해와 존중 증진

화순군은 지난 20일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지회장 천기선) 주관으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제5회 '화순군 장애인 한가족 대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가족들이 함께 참여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통을 촉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화순군 장애인 한가족 대축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가족들도 함께 참여해 가족사랑을 실천하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증진하는 장을 펼친 행사로 지역사회의 화합을 이끌었다.



지난 20일 화순군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장애인 한가족 대축제'가 열렸다. 화순군 제공

행사 준비는 전남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지회장 천기선), 전남지역 발달장애인복지협회 화순군지부(지부장 최영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화순군지회(지회장 심재갑), 전남농아인협회 화순군지회(지회장 김훈), 전남신체장애인복지회 화순군지부(지부장 문종열) 등 총 5개 단체가 함께 힘을 모았다.

주민 대상 무료 법률상담 장성군 삼계면 주민자치센터

지난 16일 장성군 삼계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무료 법률상담이 진행돼 이목을 끌었다.

23일 장성군에 따르면 상담은 광주 소재 '법무법인 백' 소속 정주혜 변호사가 맡았다. 정 변호사는 궁금한 법률적 내용들을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 호응을 얻었다.

평소 광주에서 무료 법률상담 봉사를 해온 정 변호사는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신 삼계면 이웃들께 작은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며 선뜻 재능기부에 나서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앞으로 3개월간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정기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흥렬 삼계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앞으로 있을 법률상담에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일상 속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영애 삼계면장은 "무료 법률상담을 마련해 주민 정주혜 변호사와 주민자치위원회에 감사하다"며 "면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영광군, 벼 특별경영안정대책비 지급

관내 5300여농가 대상

영광군은 벼 재배 농가의 신속한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 19일, 벼 경영안정대책비 62억원을 5300여농가에 지급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1일 기준 영광

군에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쌀 감축을 위해 노력한 논 타작물 재배 참여 농지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다.

농가별 2ha 한도로, 벼 경영안정대책비 75만원/ha를 농가 계좌로 지급했으며 특히 올해 이례적인 쌀 가격 하락으로 어

이날 기념식에는 김종택 전남지체장애인협회장을 비롯한 전남도 내 22개 시군지체장애인협회 지회장들과 지역 인사 및 기관장이 참석했으며 각 단체 회원과 가족 등 5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난타팀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1부에서 개회사와 축사, 장애인복지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장과 감사패가 수여됐으며 2부는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에어스포츠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쳐 큰 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에서 구복규 화순군수는 "화순군은 차별과 소외 없이 장애를 지닌 이들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화순=김선중 기자

려움을 겪었을 농업인들을 위해 벼 특별 경영안정대책비 36만원/ha를 추가 지급하여 ha당 총 111만원이 지급됐다.

영광군 관계자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데도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해 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농업인이 있는 경우 2023년도 소득금액증명서를 첨부해 오는 2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추가 신청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거점 소독시설 현장 점검 영광군, 9년 연속 전염병 없어

영광군은 최근 인근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축산 관계 시설 출입 차량 방역 소독 추진 상황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거점 소독 시설을 방문했다고 23일 밝혔다.

영광군은 2014년 발생 이후 9년 연속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영광 IC에서 영광으로 진입하는 관문인 우평리에 거점 소독 시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거점 소독 시설에서는 축산 차량을 소독한 후, 소독 필증을 휴대한 차량만 농장에 출입하도록 하고 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인근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농가와 행정이 서로 힘을 합쳐야 청정 영광을 유지할 수 있다"며 "가금 농장에서는 출입 통제와 소독, 축산 출입 시 전용 장화를 갈아 신기, 의심 축발견 시 가까운 방역 기관에 즉시 신고하는 등 AI 발생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